

나폴리 김민재, 2경기 만에 데뷔골... 만점 수비는 '덤'

몬차와 홈경기서 후반추가시간 헤딩골... 4-0승리 견인 공수 양면서 맹활약... 평점 7.8점, 팀내 세 번째로 높아

김민재(SSC 나폴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데뷔 두 번째 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것도 홈 데뷔전이었다. 물론 만점 수비는 덤이었다.

김민재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몬차와의 2022-23 이탈리아 세리에 A 2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터뜨렸다.

전반과 후반에 나란히 2골을 넣은 나폴리는 승격팀 몬차를 상대로 4-0 완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전문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김민재에게 7.8점을 매겼다. 김민재에게 코너킥으로 크로스를 전달하는 등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피오트르 지엘린스키(8.5점)와 2골을 넣은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8.0점)에 이어 팀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다. 그만큼 김민재는 공수 양면에서 나폴리의 중추 역할을 했다.

이탈리아 나폴리 가곡 '오 솔레미오'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민재는 나폴리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들어섰다.

김민재는 홈 팬들의 따뜻한 응원에 보답

이라도 하듯 상대팀 몬차의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사실상 몬차는 김민재를 비롯한 나폴리의 탄탄한 수비에 맥을 추지 못했다.

나폴리도 전반이 끝나기 전에 2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반 초반 줄기차게 몰아치고도 몬차의 골문을 열지 못했던 나폴리는 전반 35분 지엘린스키의 패스를 받은 크바라츠헬리아의 멋진 감아차기 중거리포로 몬차의 골문을 열었다.

전반 추가시간에는 주공격수 빅터 오시멘의 추가골까지 나왔다.

기선을 제압한 나폴리는 후반 17분 다시 한 번 크바라츠헬리아의 득점포로 3골 차까지 앞서 나갔다.

몬차가 한 차례 골문을 열긴 했지만 VAR 판독 결과 안드레아 페타나가 골을 넣기 직전 나폴리 선수를 밀어 넘어뜨리는 파울이 발견돼 취소됐다.

후반 추가시간 6분이 선언된 가운데 김민재는 몬차 진영 페널티 지역까지 들어가 코너킥에 이은 헤더로 골을 기록했다.

동료 선수들은 물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데뷔골을 축하하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스



나폴리의 김민재(왼쪽)와 몬차의 안드레아 페타나가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스타디오 나폴리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2022-23 이탈리아 세리에 A 2라운드 맞대결에서 볼다툼을 하고 있다.

JYP 신인 '엔믹스' 7개월 만에 컴백 내달 '엔트워프' 발매



JYP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엔믹스'가 7개월 만에 컴백한다. JYP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가 7개월 만에 컴백한다.

22일 JYP에 따르면, 엔믹스는 오는 9월19일 오후 6시에 싱글 2집 '엔트워프'를 발매한다.

엔믹스는 릴라-해원-설윤-지나-배아-지우-규진 일곱 멤버로 구성됐다. 올해 2월 22일 데뷔싱글 '에드 마레'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오오'로 활약했다.

'걸그룹 명가' JYP가 있지(ITZY)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다.

당시 데뷔 음반으로 한터차트 기준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22만7399장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JYP는 "엔믹스는 나우(now), 뉴(new), 넥스트(next),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상징하는 단어 '믹스(MIX)'를 합성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룹명처럼 무한한 매력과 가능성을 무기로 차세대 K팝 핵심 주자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스

광주체고 문건영, 전국체조대회 4관왕

광주체육고 문건영(1학년·사진)이 전국체조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10월 전국체전에서 다관왕 가능성을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고 문건영이 전남 영광 스포티움체육관에서 열린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 남고부에 출전한 문건영은 안마에서 13,267점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도마(13,483점)와 평행봉(13,967점)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개인종합 76,200점으로 금메달 4개를 수확했다. 문건영은 링 종목에서



12,033점으로 3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문건영은 지난 제47회 KBS배 전국체조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종합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문건영은 11월에 체코에서 열리는 세계 주니어 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한다.

활 내려놓는 올림픽 2관왕 장혜진... "은퇴 시원섭섭"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양궁 2관왕에 빛나는 장혜진(35·LH)이 은퇴한다.

장혜진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를 끝으로 활을 내려놓는다.

장혜진은 21일 "뭔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든다. 은퇴가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10월 출산을 앞뒀다.

장혜진은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 사상 최초 올림픽 전 종목 석권을 이끈



장혜진이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스

주역이다.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

랐다.

대기만성의 아이런이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